

개화기 개신교의 번역사역과 한국 어문의 근대화*

정 정 호
(중앙대)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기독교가 우리민족의 근대화와 신문화에 끼친 영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 정신생활의 매개체가 되는 중심과제는 어디까지나 언어와 문학이다. 정신생활에 있어서 내적 탐구의 구체적 실현이 문학에 있고, 사교형식의 외적 실현은 언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문화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이 논의되려면 우리의 언어와 문학에 끼친 그것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유성덕 1)

I

기독교가 다방면에 걸쳐 한국의 근대화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화기에 기독교의 기본 텍스트인 『성경』의 순수 언문(한글)으로의 번역이 한국의 언어와 문학의 근대화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언어와 문학은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토대가 된다. 언어

* 이 논문은 2007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란 일상적인 의사소통 뿐 아니라 정보, 지식, 이론을 수립하고 축적하고 교류하여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개신교의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본격적으로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했던 조선후기 개화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시기에 이루어졌던 성경번역을 비롯한 문서 번역사역이 얼마나 우리의 말과 글의 근대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¹⁾

글의 서두에서 이 논문의 핵심적인 개념인 “개화기”와 “근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개화기란 조선의 왕조체제가 붕괴되고 일제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중간지점이다. 흔히 제 3의 중간시대는 과도기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간”이란 소극적인 정체성이 머무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더 역동적이고 대화적인 복합적인 시기라고 볼 수도 있다. 우선 구한 말 개화기를 1894년 갑오경장과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입국한 1890년대 초부터 한일합방이 있었던 1910년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다.

유홍렬이 감수한 『국사대사전』은 ‘개화시대’를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룩하던 데서도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던 시대이다. 즉, 병자수호조약 이후 종전의 봉건사회질서를 타파하고 근대적인 사회로 개화되어 가던 시기”(44)라 적고 있다. 천관우는 한국의 근대사상을 개관하는 자리에서 개화사상을 “열강에 대한 문호개방을 도리어 한 계기로 삼아, 국내체제를 근대적으로 개혁하고 선진적인 과학기술문명을 도입하여 생산력과 군사력을 기름으로써 민족독립 수호하고자 한 것”(14)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 개화사상의 싹을 천관우는 박제가 이후의 조선실학파의 전통의 영향과 서양문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1860년대 양무운동(洋務運動)을 시작한 청의 자강(自強)운동의 영향, 그리고 메이지유신(1868년 이후)이 추구하던 문명개화운동의 영향에서 찾고 있다.

1) 최근 서양사학자 박지향은 조선개화기에 대해서 “문명개화의 꿈을 이루기도 전에 일본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해버리고 만다.”(84)라는 일반론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1910년 이전까지 개화(근대화)하려는 조선인들의 노력은 치열했다. 외국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교육, 의료 등의 근대화 사업과 일부 한국인들과의 협력을 통한 그들의 성경번역작업이 한국어문근대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화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기독교의 개신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살펴보자. 18세기 말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올 때 조선 지배층의 맹렬한 저항과 비교해보면 19세기 말 개신교는 비교적 순조롭게 조선에 유입될 수 있었다. 천관우는 계속해서 개화기의 기독교의 공인과정에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갑신정변이 있던 1884년에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의료사업 등을 통하여 궁정의 호의적 반응을 얻고, 그 이듬해에 상주 선교사인 장로교의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셀러가 들어와, 교회와 서양식 교육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개신교의 수용이라는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개신교는 ... 약 반세기만에 비로소 국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구교가 저 많은 순교의 참극을 치룬데 대하여 신교가 비교적 수월하게 들어오게 된 것은, 신교가 집권층과의 접근에 성공한 까닭도 있지만, 또 조선왕조로서도 이미 서양문화에 대한 폐쇄만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었던 데에 원인이 있다. (15)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온 상황은 인근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하고도 달랐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강한 저항을 받았고 크게 융성하지도 못했다. 물론 18세기 말엽에 처음 조선에 들어온 천주교는 당시 유교중심의 지배계급에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19세기말 개화기에 개신교가 조선에 들어올 때는 저항이 많지 않았다. 일부 지배계급에게는 거부당했지만 많은 백성들은 기독교를 환영하였다. 따라서 서양의 총칼을 앞세운 제국주의의 침병으로서의 기독교 유입의 일반적인 과정은 개화기 조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홍덕창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어 길지만 인용한다.

첫째 그 당시 한국은 전통적 종교의 사실상의 공백상태를 들 수 있다. 조선조의 배불숭유정책 하에서 국가의 지도 원리로 되어 있던 유교는 원래 종교적 측면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한때 성하던 불교나 선교도 형식만 남아있어 조선조 말기는 사실상 신앙의 공백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백기에 새 종교에 대한 갈망으로 기독교는 급속히 수용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청일전쟁[1894-95]에서 청국이 일본에 패한 것을 목격한 한국인은 근대화를 위해 전통적인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양의 사상을 수용하려

고 하였고 그리하여 기독교에 의지하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로 개국과 함께 밀어닥친 외세의 난무에 갈피를 못 잡던 한국인은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기독교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넷째로 기독교가 을사보호조약[1905]의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급속히 팽창한 사실로 보아 무엇보다도 한말의 국가적 비운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재언하면 일인폭도들에 국모인 민비가 시해[1895]당하는 기막힌 비운과 한일합방이라는 국가자체가 멸망하는 사실을 지켜보고 통분과 좌절감에 헤매이던 이 민족의 대중은 어떤 박력과 조직력을 가진 개신교에서 그 대책을 찾으려고 하였는지도 모른다. (115)

II

개화기 초기 개신교 선교가 의료선교, 교육선교, 사회사업선교 전략으로 일단 시작된 것은 자못 의도적이었다. 우선 조선인들의 반감이나 저항을 약화시키고 호의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 근대화 신교육을 통해 해외의 지식, 기술, 사상, 문화를 섭렵할 기회를 주고 가르쳐 조선인들을 개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보자. 1884년 미국 북장로교의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최초로 들어와 미국 공사관 부속의사로 있었던 알렌(H. N. Allen, 安連, 1858-1932)은 갑신정변 때 민영익을 치료하여 고종의 시의(侍醫)가 되었다. 그 후 1885년 4월 조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제중원)을 설립하였고 동시에 선교 활동을 하였다. 베어드(W. M. Baird, 배위량, 1862-1931)는 1891년 3월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대구, 서울, 평양 지역 선교회 일을 보면서 1897년 숭실학당을 시작하여 1906년 한국최초의 4년제 대학인 숭실대학을 세워 교육사역과 성서번역사역을 하였다. 스크랜튼 부인(M. F. Scranton, 1832-1909)은 1885년 최초의 미국 감리교 여성선교사로 조선에 입국하여 여성 교육사업을 하다가 1886년에 민비에게 교명을 하사받아 이화학당을 창립하였다. 그 후 한국에 남아 여성선교와 교육에 일생을 바쳤다. 알렌, 베어드, 스크랜튼 부인 등과 같은 많은 선교사들의 개화와 계몽 활동은 보수적인 조선에 기독교가 쉽게 들어오게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의료 사업과 선교 교육이라는 간접 선교 방법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야 놀랄만한 효력을 내기 시작했다. 이전에 조선 사람들은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생각했었고, 일본 사람들뿐 아니라 서양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했었다. 그러나 일본의 승리가 우월한 서양 문명과 기술을 받아 들여 나라를 근대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처럼,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들은, 특히 개화 엘리트와 그 추종자들은 일본이 수십 년 전에 이미 받아들였던 서양의 가치와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확신하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노골적인 야욕을 경계해야만 했고 그래서 전후에 반일본 감정이 조선 사람들 사이에 급속히 치솟았다. 일본의 근대화를 극구 찬양하면서 조선의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위해 일본의 도움을 구했던 개화 엘리트까지도 청일전쟁 이후에는 반일본, 친서구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고종도 기독교 국가들은 침략적인 일본 제국주의에 직면해 있는 무력한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리라 생각했고, 실제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노력했다. 달리 말하면, 청일전쟁과 그 후 발발한 러일전쟁[1904-05]은 그들의 뿌리 깊은 반일 감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였고, 이와 함께 그들의 반서양적 태도를 완화시켰다. 이런 상황 아래서 교육과 의료 사업 같은 개신교의 선교 프로그램은 개혁을 바라고 동시에 일본의 식민 야욕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강하게 먹혀들기 시작했다. 새 개종자들은 종교적 동기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온 교회가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목적—반일적인 정치·사회 개혁—을 진전시킬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으로 개종하기도 하였다.

백낙준은 『한국개신교사』에서 개신교는 “국민 전체간의 합심과 단결을 가져오고 교회에서 새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책을 내고, 새로운 과학을 소개하며, 도덕적 표준을 높이고, 사회악을 개혁하고, 산업을 장려”하여 “한국인에게 새 이상과 새 인생관, 새 세계관을 소개”하였다고 지적하였다(천관우 16에서 재인용). 문학사가이며 비평가인 백철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개화시대”란 말할 것도 없이 선진적인 구미의 근대정치와 문명의 제도를 새로 받아들이는 데 의해서 낡은 것과 새것을 바꿔가는 시기인데 이 외래의 새 것 중에서 기독교가 그 새 것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다(93). 그러나 개화기 조선인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의료, 교육, 사회사업, 문맹퇴치 때문만은 아

닌 것처럼 보인다. 당시 조선인들의 자신들의 생존에 좀 더 절박한 이유 때문에 교회의 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당시 한반도의 극심한 무질서한 혼돈과 미래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좀 더 근본적으로 일상의 생존적 차원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개화의식은 근대화였다. 그렇다면 ‘근대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 할 것인가? 근대화란 영어에서 보면 근대성(modernity)을 추구하는 근대적으로 되기(modernization)이다. 근대성이란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서양제국들이 발전, 진보, 이성, 합리주의, 과학, 민족, 개별국가 등에 관해 가치부여를 하고 추구하였던 결과물이다. 이러한 서구적인 근대화는 일찍부터 중국이나 일본에 들어와 있었다. 한반도에도 17, 18세기에 근대화 개념이 들어와 서학, 북학 등의 이름으로 영향을 끼친 본격적인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사상인 실학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근대화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는 실학사상은 한반도 내재적인 것인가 아니면 외재적인 것인가? 여기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있다. 실학사상이나 근대화 개념이 17, 18세기에 당시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에게 내재적으로 발전한 것일까?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충격으로 외재적인가? 필자 같은 비전문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역사 발전의 과정에서 볼 때 어느 한쪽만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모방과 창조라는 고통스런 과정 속에서 좌절, 굴절, 변형, 도약을 겪는 문화번역 행위이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식민지 수탈론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역사의 진전과 사회의 발전은 서로 다른 모순들이 중첩되고 반복되면서 복합적인 작동에 의해 나선형을 따라 대위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상당 수준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진부한 주제를 또 다시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의 이 작업은 지극히 개인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필자가 한국 신문학 형성에 대한 비교문학적 사유를 하는 도중에 개화기 초기부터 한국어문에 가장 영향을 끼친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다. 언어와 문학에 같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교육전도사역과 의료전도사역으로 출발한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이 번역한 성경과 찬송가가 아닐까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이미 지적한대로 이 방면의 기초적인 연구는 고(故) 김병철 등의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앞으로의 작업은 좀 더 심도 있는 구체적인 비교와 영향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

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다만 이 주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앞으로 개화기, 근대화, 기독교, 번역, 비교학, 신문학 그리고 한글운동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다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개화사상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보자.

우선 육당 최남선 선생부터 시작해보자. 육당 선생은 주지하다시피 개화기에 한국어문과 사상의 모든 영역에서 서양의 근대화를 가장 치열하게 주장하고 신체시를 실험하는 등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춘원 이광수와 더불어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가장 중요한 계몽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다. 육당은 해방직후인 1946년에 『조선언 상식문답』이란 작은 책을 상재한다. 이 책은 조선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다고 한탄하여 육당이 짧은 시간에 쓴 책이다. 이 책은 지금도 흥미를 끄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본 주제와 관련해 필자의 눈길을 끈 항목은 “기독교가 조선에 끼친 영향”이다. 육당은 무려 9가지로 그 영향을 광범위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선어문의 발전과 조선근대문화 소개에 관한 2가지만 소개한다.

둘째는 국어, 국문의 발달이며, 기독교선교사가 경전번역과 책자작성을 위하여 조선어법 및 조선문체를 연구하여 종래에 향언(鄉言), 언문(諺文)이라고 경시되던 국어, 국문에 새로운 생명과 가치를 갖게 된 것은 진실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일대공헌이라 할지니 저 천주교 전래 후에 교서역성(敎書譯成)의 일변에서 사전편찬이 수차 실행되고 신교가 들어온 뒤에는 성서전역과 찬송가 번역 등을 위하여 어문의 용이 더 커지는 동시에 조선어의 문법연구가 그네들의 손으로 장족진보 되는 등 조선어문에 대한 기독교사들의 공적은 진실로 영원한 감사를 받을 것이요, 셋째 근대문화의 세례니 기독교사는 전도의 기구 또는 방편으로서 학교를 설립하고 따라서 근대 학술의 교과용서를 만들고 시료사업으로 인하여 근대의학을 전하고 근대적 인쇄술을 수입하고 신음악을 보급하고 집회, 오락, 교제, 연설, 토론 등 공동생활의 양식을 가르치고 그네의 사생활에서는 음식, 의복, 원예, 공작 등에 관한 가르침을 받는 등 기독교의 진행은 그대로 근대문화의 보급을 의미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20)

육당은 이밖에 정신적 해방의 큰 은덕인 미신의 타파, 예배기타의 집회에서 남녀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부녀의 해방(남여평등), 의식의 간소화, 계급적 고습

의 혁제(계급의식 타파), 교회를 통해서 세계호흡의 교감(세계화 의식), 국권 상실 후에 민족운동의 의지의 발견(자주 독립 정신), 조선적 문화와 사정이 선교사들의 저술로서 외국에 소개(한국해외소개)를 기독교 전래가 조선의 문화 및 조선인의 생활에 끼친 것도 공적으로 꼽았다. 조선민중의 각성에서 시작된 개화시대의 기독교와 교회는 당시 유일한 개화사상을 전개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고 나아가 조선의 교회는 애국주의, 민족주의, 독립사상의 온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한 우리는 흔히 개화기에 성경번역과 찬송가 번역이 창가, 신소설, 신체시 등을 통해 신문학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토대는 무엇인가? 우리는 월북 문학이론가 임화(林和)에게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는 1940년 1월 발표한 「신문학사의 방법」이란 글에서 “신문학사의 대상은 … 조선의 근대문학이며 근대정신을 내용으로 하고, 서구 문학의 장르를 형식으로 한 조선의 문학이다.” 라고 전제하고 신문학의 토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므로 신문학사는 조선 근대사의 성립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근대적 문화의 한 형태인 만큼 신문학사는 조선 근대 문화사의 한 영역임을 부단히 의식하면서 독자적으로 근대사회사와 관계를 맺고 교섭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학사의 토대로서의 근대조선사회사라는 것이 따로 의식되어야 한다. 이것은 신문학사 연구에 있어 문학작품 이외의 가장 큰 대상의 하나이며 최종요한 보조적 분과다. … 토대에는 관심은 그러므로 신문학을 새로운 정신문화의 한 형태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새로운 시대정신의 형성 없이 신문학은 형성 되었을리 만무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은 봉건적 사회관계의 와해와 시민적 사회관계의 형성을 표현하는 관념형태다. … 신문학이란 조선에 있어 근대정신만이 착용할 수 있었던 정신적 의장이라 할 수 있다. (483)

여기에서 임화가 주장하는 요점은 신문학 생성은 근대정신을 불러온 토대(관념 형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 토대라는 것이 성경번역, 찬송가 번역 등을 통해 기독교와 함께 들어온 서구의 다양한 사상의 모체인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관념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관념형태로서의 토대를 찾아내는 복합적인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III

한국 개신교의 선교활동은 성경의 번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성경번역은 만주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만주 봉천에서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선교활동을 하던 조선에 관해 관심이 많았던 존 로스(John Ross, 1841-1915) 목사는 한글 성경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는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목사 그리고 한국 의주 출신 청년조력자들 이용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서상륜 등과 함께 1875년부터 번역을 시작하였다. 그후 그는 심양 문광서원에서 1882년에 평안도 사투리가 강한 『누가복음』(56매)과 『요한복음』(54매)을 출간하였다.

공역자의 한 사람이었던 매킨타이어 목사는 최초 한글 성서 번역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성서의 한글 번역은 나의 성경반에서 진행되었는데 먼저 조선인 번역자들이 나와 함께 한문 성경을 읽고 나서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그것을 다시 헬라어 원문과 대조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하였다”(김병철 33에서 재인용). 그 이듬해 『사도행전』, 『말코복음』, 『마태복음』이 발간되었고 일부 수정되어 재발간되었다. 1887년에는 역시 만주 봉천의 문광서원에서 신약 전체가 번역되어 『예수성교전서』가 출간되었고 이것은 흔히 로스역(Ross Version)이라고 불리운다. 최초의 한글 신약 전서는 로스 목사의 단독 번역이 아니라 앞서 소개한 여러 사람들의 협업의 결과였다.

김병철은 로스역의 의미를 “한글 성서가 개화기 이후의 소설 문학 내지 언문일치의 문장의 산모였다… 한글 성서의 효시가 되는 로스역이야말로 한글의 발전과 언문일치의 신문체에 기여한 점은 다대하다”(27쪽)고 지적하였다. 개화기의 성경의 한글번역은 서구 문화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기독교 사상을 구한말 개화기 시대에 조선반도로 이동되고 이식시켰다. 기독교 사상은 조선의 전통사상과 문화와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새로운 번역을 통해 수용, 변용, 전용되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의 일부가 되었다.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누가복음』 1882년 초간본과 최종 수정 그리고 그 이후 최근까지의 역본들과 비교해 보자. 비교부분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이다.

A: 마즘그썸여기살아구스토가턴하사롭으게죄세하여 호적을올리난디 쿠레노는 수리아방벽이되여이 호적이 처음으로 횡하고 못사람은가 호적을올리고 각각그고을노 돌아가난디 요셉은 다윗의 족보라고로 가리리의 나살잇노부터 유디에나아가다윗의 고을에닐으니 일흠은벳니엄이라 빙문한바마리암인티훈바더부러 호적을올리니 거기서 아나을괴약이차맛아달을나오니 비로써싸말고말궁이에 누이문직점에 용납할곳이업사미라그디방에목인이이서 밧테셔바음에양의 무리를 직키는 디주의사자갓티서서주의 영광이 두루 빛치우거날더덜이크게 무셔워하니 사자갈오디 무셔워말나니 너의게 디회할기별을보하노니 이는 못빅성을위할자라 (1882 초간본)

B: 1맛참그썸에 기살아구스토가턴하사롭으게죄세하여 호적을올리니 2 쿠레노는 수리아방벽이되여 썸에이 호적이 처음으로 횡함 3 못사람이 가서 호적을 올리고 각각 그고을노 돌아가는디 4 요셉은 다윗의 족보라고로 가니 너의 5 나살잇노부터 유디에나아가다윗의 고을에닐으니 일흠은벳니엄이라 6 빙문한바마리암인티훈바 더부러 호적을할시마참거기서 아나을괴약이차미 7 맛아달을탄생 하니 비로써싸말고말궁이에 누이문직점에 용납할곳이업스미라 8 그디방에목인이이서 밧테셔바음에양의 무리를 9 직키는 디 주의사자갓티서니 주의 영광이 두루 빛치우거날 목인이 크게 무셔워 하니 10 사자갈오디 무셔워말나니 너의게 큰것분복음을보하노니 이는 못빅성으 위할자라 (1887, 개정판『예수성경전서』)²⁾

C: 二 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승을 내려 天下로 다 戶籍하라 하였으니 二 이 戶籍은 구레노가 수리아 總督 되었을 때에 첫 番 한것이라 三 모든 사람이 戶籍하러 各各 故郷으로 들르아가매 四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洞里에서 유대를 向하여 베들레헴이라하는 다윗의 洞里로 五 그 定婚한 마리아와 함께 戶籍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孕胎되었더라 六 거기 있을 그 때에 解産할 날이 차서 七 딸아들을 낳아 襁褓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舍館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〇 八 그 地境에 牧者들이 밖에서 밤에 自己 羊떼를 지키더니 九 主의 使者가 곁에 서고 主의 榮光이 저희를 두루 비

2) 대조비교를 위한 참고로 번역에 많이 참고했으리라고 여겨지는 당시의 흠정영역성경 (King James Version)에서 해당부분을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一o天使가 칠 큰 기쁨의 좋은 消息을 너희에게 傳하노라(1964, 국한문혼용 관주성경)

D: 예수의 탄생

1그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2o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3o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4o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5o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 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6o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7o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다

8o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9o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10o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2001, 『표준새번역』 개정판)

A에서 D까지의 여러 번역 텍스트들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최초의 순한글 번역본인 A는 순한글로 되어 있으나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 구두점도 없다. 강내희가 주장하는 근대 어문 형식인 문장 끝의 종결어미 「-다」로도 안 끝나고 있다. 개정판인 B에서도 모든 것은 A와 같으나 절번호인 숫자를 붙이고 절 사이를 띄운 것도 다르고, 단어의 맞춤법도 조금 달라졌다. C부터는 비로소 띄어쓰기가 시작되었고 한문을 읽을 수 있는 독자들을 위해 한자를 사용하였고 본격적으로 띄어쓰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D에서부터는 장에 소제목까지 붙이고 맞춤법도 거의 요즈음 것에 가까워졌다. 무엇보다도 종결어미 「-다」가 이미 예외 없이 사용되고 있다. E의 경우는 과감히 현대어 구어체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각 텍

스트의 번역의 변천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역자들이 참조한 한문성경과 일본어 성경과 나아가 히브리어 구약과 헬라어 신약까지 참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 작업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즈음 일본에서도 개신교 역사상 두 번째로 성경의 일부가 학자 지식인 이수정(李樹廷)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었다. 이수정은 1882년 8월 9일 박영효가 이끄는 수신사의 수행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수정은 원래 외국의 종교로 기독교를 반대하였으나 동경대학의 조선어강사가 되고난 후에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그 이듬해 4월에 동경의 한 교회에서 안천형 목사에게 세례까지 받았다. 이수정은 그 후 헨리 루미스(Henry Loomis) 목사의 권유로 1884년에 한문 성서 중 4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한글토를 달아 『현토 한한 신약성서』(懸吐 漢韓 新約聖書)를 간행하였다. 이 당시 출판된 신약 중 『新約聖書 馬太傳(신약성서 마태전)』, 『新約聖書 馬下傳(신약성서 마하전)』, 『新約聖書 路加傳(신약성서 누가전)』, 『新約聖書 約翰傳(신약성서 약한전)』, 『新約聖書 使徒行傳(신약성서 사도행전)』의 이름으로 요코하마에서 미국성서공회에 의해 출간되었다. 그 후 마가복음 한글번역을 시작하여 완성하였다. 루미스 목사의 번역 방법은 매우 엄격했다. 그는 “먼저 이수정에게 한문 마가복음을 주어 그것의 정독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실제 번역에 착수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본어 성서, 영어 성서는 물론이고, 헬라어 원문까지 대조해가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번역을 진행시켰다”(김병철 49에서 재인용).

번역에 있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번역이 문제였다. 한문성서에는 ‘상제’(上帝)로 되어있고 일본성서에는 ‘카미’(神)로 되어있었다. 이수정과 루미스 목사는 결국 조선의 천주교에서 오래 전부터 쓰던 ‘천주’(天主)라는 말을 쓰기로 결정하였다. 기타 고유명사는 ‘그리스도’는 ‘크리슈도스’로 하는 등 원전인 헬라어를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한자에 익숙한 조선의 지식인들을 위해 주요 단어를 한자로 써주고 한글로 토를 달았다. 이들은 이 번역서의 이름을 『신약마가전 복음서 언해(諺解)』라 붙였고 1885년 2월 요코하마에서 1,000부가 출간되었다. 이 마가복음서 언해는 같은 해 4월 5일 부활주일에 조선 선교를 위해 제물포로 입국한 미북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목사와 미감리교회 선교사인 아펜젤러(Henry Gerhart Appenzeller) 목사는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전 마가복음서 언해』를 지

참하고 있었다.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그 나라 사람에 의해 일부나마 이미 번역된 성서를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세계 선교사상 초유일인 듯하다.

조선에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초기 선교사들은 지금까지 번역한 성서들이 오류가 많고 한문의 고투와 지방사투리가 있어 단순 수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새 번역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그들은 1887년 4월 11일에 성서위원회와 성서번역위원회(Committee for Translating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를 조직하였다. 위원으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해론, 레놀즈, 게일이었으며 한국인으로는 최병헌, 조한구, 정동맹, 이창식이었다. 이들은 수 년 간의 시험역, 임시역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판을 공동번역으로 『신약성경』 전체를 1904년이 되어서야 출간 할 수 있었다. 성서번역 위원회는 1900년부터 구약번역을 시작하여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911년이 되어서야 신구약을 모두 번역하여 『신구약성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김병철 58-66쪽). 이러한 성경은 빠른 속도로 일반 대중들에게 공급되어 1911년에 성경판매부수가 26만부를 넘어섰다고 한다(이민자 63). 이것은 한글성경이 보급됨에 따라 한국 언어, 문학, 사상 등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조신권은 성경번역이 조선 문화의 근대화에 기여한 바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러다가 성서가 譯語로서 평이한 言文一致의 한글을 채용함으로써 문자 생활과 언어생활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고, 동시에 문법과 어문 체계를 갖춘 국어로 발전시켜 주었던 것이다. 성경 국역에 자극을 받고서 개화기 이후에 등장한 소위 신소설과 몇몇 신문들이 한글 문체를 채용한 것은 言文一致運動의 일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서의 국역은 우리 언어의 비유성과 풍자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고, 우리나라의 諺解體 散文文章을 좀더 근대적인 산문체 스타일의 문장으로 발전시켜 주었다. 이와 같이 우리말의 思想性 및 文學性을 더해 주었다는 점에서 성서번역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는 자못 크다 할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글의 대중화를 통해 한국 근대화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69)

IV

선교사들의 기독교 소설번역도 한국어문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조선 최초의 서양소설 번역이었던 『천로역정』에 대해 살펴보자.

귀일역본(譯本): 두사람이동행하야가며길에서본일을피츠의론홀시긔독도(基督徒)진충(盡忠)드려말하디내가이제그디를싸라와동행하느거슬미우깃버하느니이거슨하느님이지시하샤우리들이동행하게하심이니그은혜를감사하노라진충(盡忠)이골으디처음부터그디와긔치동행하자하엿더니나보다몬져셔낫스매홀수업서혼즈오노라긔독도(基督徒)골으디내가장망성(將亡城)에서셔남으로부터그디가몇칠이나더잇다셔낫나골으디오래잇지못홀곳인줄알고진작싸라왔노니그디셔난후에사람이다말하디이곳이미구에턴화에살와지리라하더라긔독도(基督徒)이상이넉여무러골으디웃사람들이과연그리말하더라진충(盡忠)이골으디그탕타잠간동안에인심이다변하야그리말하더라긔독도(基督徒)골으디그러면더희들이다도망하야나아와야올케놀웨너만혼즈왔나진충(盡忠)이골으디여러사람이말은다그리하면셔단단히밋지는아니하고네일을담론하며우서골으디그길은열애아홉은죽고혹나이나사는길이라하더라. (김병철 182-83에서 재인용)

꿈에 보니 그들은 매우 사이좋게 함께 걸어가면서 순례 여행 도중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크리스찬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크리스찬: “존경하고 친애하는 나의 형제 믿음씨, 내가 당신을 따라잡아 만나게 된 것이 몹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어 이렇게 함께 즐거운 동반자로서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는 바입니다.

믿음: “경애하는 친구여, 사실은 우리가 살던 도시를 떠나올 때부터 당신과 함께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당신이 그만 먼저 떠나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도 이렇게 먼 길을 혼자 떠나오게 된 것이지요.

크리스찬: “당신이 날 따라서 순례여행을 떠나기 전에 얼마 동안이나 멸망의 도시에서 머물러 있었습니까?”

믿음: “당신이 우리의 도시를 떠나자마자 가까운 장래에 하늘로부터 유황 불이 떨어져 내려 온 도시가 잿더미가 돼 버릴 거라는 굉장한 소문이 순식간에 좌악 퍼져 버렸지요.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유성덕 옮김 90, 1987)³⁾

3) 번역대조 비교를 위해 참고로 영어 원문을 제시한다.

Then I saw in my dream they went very lovingly on together, and had sweet

게일 목사(James Scrath Gale, 1863-1934) 부부는 1895년에 17세기 영국 소설가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의 기독교적 우의소설인 *The Pilgrim's Progress*(1678)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천료력명』(天路歷程)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 한글 소설은 한국 최초의 서양 소설의 번역이었다. 조선후기 풍속화가 기산 김준근이 조선의 풍습과 문화에 맞추어 삽화를 그렸다. 이 소설은 그 후 “한글 신문학의 모체”가 되었다. 김준근의 삽화는 “기독교 미술의 시초”이며 “원근법을 사용하였고, 등장인물이 한복과 갓을 쓰고 있고 천사의 모습은 한국의 전통적인 선녀의 모습”을 띠고 있다(『한국기독교 박물관 도록』 256). 게일 목사의 번역을 영어원문과 비교해보면 당시 번역의 전략과 수준을 알 수 있다. 우선 문장 하나하나를 모두 번역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대의만 적어놓는 의역과 번안으로 처리되어있다. 그리고 원문은 대화체인데 몽땅그려 산문으로 번역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게일목사에게 번역은 기독 교리에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병철은 개화기에 번역된 다른 소설이나 문학작품들을 논하면서 문학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 (1) 한국문학사의 개화기 신문학 출현에 있어 창작소설이 나오기 전에 벌써 번역문학이 선행하였다는 사실, 즉 개화기 신문학은 번역의 맹아로써 개화 과정의 시발점을 삼았다는 것.

discourse of all things that had happened to them in their pilgrimage: and thus Christian began.

Christain. My honoured and well beloved brother Faithful, I am glad that I have overtaken you and that God has so tempered our spirits that we can walk as companions in this is so pleasant a path.

Faithful. I had thought, dear friend, to have had your company quite from our town, but you did get the start of me; wherefore I was forced to come thus much of the way alone.

Christain. How long did you stay in the City of Destruction, before you set out after me on your pilgrimage?

Faithful. Till I could stay no longer; for there was great talk presently after you was gone out that out city would in short time with fire from Heaven be burned down to the ground. (101, Penguin, 1965)

- (2) 개화기 소설이 구축한 의식구조; 즉 민권과 국권 수호에 문학이 봉사해야 한다는 공리적인 소설관이 당시의 번역문학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구축되었다는 것
- (3) 순문예소설 생산에 있어서도 <유목역전>(아리비안 나이트)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번역소설이 창작소설에 앞섰다는 것. 따라서 여기서 얻어진 결론은,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개화기 신문학은 그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영향을 당시의 번역문학에서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169)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근대소설의 모체였던 한국 신문학은 창작소설이 아닌 번역소설에서 시작되었다는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또한 한국근대시의 문체였던 신체시는 찬송가 등에 영향을 받은 창가(唱歌)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개화기 신문학 연구는 성경번역, 찬송가번역, 그리고 번역문학(『천로역정』 『유목역전』 등)에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하고 번역학적 연구와 비교학적 접근은 필수적인 것이다.

개화기의 초기 개신교선교사들은 성경번역이나 찬송가 번역 외에도 문서번역에도 관심을 가지고서 1890년에 언더우드, 헤론, 올리거 등이 중심이 되어 좀더 효과적인 문서선교사역을 위해 장로교, 감리교의 연합문서 사업가 조직으로 조선성교서회(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를 설립하였다. 이곳에서 한 일은 주로 기독교서적 역출과 신문, 잡지를 창간하여 선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 기관의 첫 번째 사업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설명한 책으로 1890년에 『성교촬리』(聖敎撮理, *Core Doctrines of Christianity*, G. 존 지음)를 언더우드가 한글로 번역 출간하였다. 1892년에는 A. D. 사이츠(Sites)가 지은 『성경도설』(聖經圖說, *Bible Picture Book*)을 L. 로드와일러(Rothweiler)에 의해 번역 출간되었다. 숭실대학교 한국 기독교박물관의 도록에 의하면 이 책은 “구약의 유명한 사건 80가지를 삽도로 구성하고 그림에 대한 역사와 정황을 설명하였다. 에덴,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행적, 모세의 기적 등 구약의 지도적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삽화와 설명”으로 편집한 책이다(258 쪽). 1898년에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해석한 개화기에 가장 널리 읽혔다는 A. D. 밀른(Milne)이 지었고 마포삼열(馬布三悅, S. A. Moffett) 목사가 번역한 『장원량우상론』(張袁兩友相論, *The Catechism between Two Friends*)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전통종교들인 유교, 불교, 도교, 점술은 잘못된 것이며 오직 기독교가 참

진리라는 내용을 장씨와 윤씨 성을 가진 두 친구가 대담형식으로 진행하고 회개, 중생, 부활, 천당과 지옥, 심판, 기도 등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기독교의 선교활동에서 신문과 잡지의 발간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한국 어문의 근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1892년 1월부터 1898년 12월까지 선교사들에 의해 간행된 한국 최초의 영문 잡지인 『한국 보고(寶庫)』(*The Korean Repository*)를 살펴보자. 이 잡지는 배재학당 기관인 삼문출판사에서 월간으로 간행되었고 창간한 사람은 이 출판사 사장이었던 감리교 선교사 F. 올링거(Olinger, 1845-1919) 부부였다. 그 후 편집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계속 간행된 이 월간지에는 당시의 정치, 외교문제, 사회와 문화, 선교사업과 선교정책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루었다. 정치 문제로는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을미사변 등에 관한 사설이나 논평이 있다. 일례로 민비가 시해된 1895년 을미사변에 관한 왕비의 암살, 사건조사, 장례식까지 9건이나 된다(유영렬 외 86). 문화부문에서도 조선의 관혼상제, 세시풍속, 풍수지리, 무(巫), 놀이 문화 등에 관한 기사도 많다.

성서번역사업에 관한 한 기사를 살펴보자. 이 기사는 「조선에서의 성경번역」(*Bible Translation in Korea*)으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원고가 위원회에서 결정되거나 위원회의 최종본이 조심스럽게 준비되면 그 원고는 이사회에 “시험역본”(Tentative Edition)으로 출판을 위한 상임 성경실행위원회에 넘겨진다. 시험역본 준비에는 3단계가 있다.

- (a) 동료역자들의 도움 없이 만들어진 개인 역본
 - (b) 다른 여러 역자들의 서면 비평과 제안에 토대를 두고 작성된 임시 역본
 - (c) 임시역본에서 논쟁이 된 번역 부분들에 대한 사후모임에서 다수결 투표에 의해 결정한 위원회역본
- 위원회의 계획이 시험역본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면 마지막 역본이 시험역본으로 출간된다. (유영렬 외 278-79)

이와 같은 기사를 볼 때 초기 성서 번역의 오류들을 수정하기 위해 매우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여러 종류가 함께 사용되었던 「조선에서의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in Korea)의 통일문제에 대한 기사가 1897년 2월호에 실렸고 「조선찬송가에 대한 고찰」(Korean Hymns - Some Observations)기사는 외국 찬송가를 번역할 때 발생하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1898년 12월에 정부의 탄압으로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한국보고」도 1898년 12호로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당시 국내의 선교사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외국에 조선의 실정을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⁴⁾

그 후 한글로 발행한 신학 잡지로는 1900년 12월에 창간된 『신학월보』(*A Biblical and Church Monthly*)가 있다. 1887년 9월에 내한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G. H. 존스(Jones, 趙元時, 1867-1919)가 『신학월보』를 창간하였고 그는 한국어와 한국역사에 정통하였고 당시 성서번역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기독교문화연구소 도록의 해설에 따르면 “1910년 폐간될 때까지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901년 최병현이 한국인 최초의 신학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적고 있다(277). 기독교계 신문으로는 1897년 2월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를 창간했고 1897년 4월 1일에는 『그리스도 신문』이 미국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에 의해 창간되었다. 『그리스도신문』은 순 한글판 주간신문으로 지면은 8면, 순 한글로 3단 세로(내려쓰기)로 되어 있다. 그 후 감리교의 「그리스도인 회보」와 합쳐졌고 1907년 12월부터는 『예수교신보』로 이름이 바뀌었고 격주간이 되었다. 1910년에는 다시 장로교 신문인 『예수교회보』로 이름을 또다시 바꾸어 간행되었다.

V

조선개화기에 초기 개신교선교사들이 성경번역 사업과 동시에 시작한 작업

4) 개화기의 선교사들을 통해 영어의 도입과 영어교육이 시작되었다. 한글과는 전혀 다른 서양언어인 영어를 통해 다시 말해 타자를 통해 정체성을 수립하는 중요한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의 사유체계를 통해 우리의 사유체계뿐 아니라 언어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박종성과 송승철의 논문 참조.

이 문서선교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성경국역과 문서선교자료 번역 편찬 등을 위한 그 필수적인 예비 작업으로 한국어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한국어 연구는 한글 발달에 커다란 촉진제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황용수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연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國語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韓國語를 배워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國語學習書와 辭典이 필요했으며 布教上 성서번역도 필수적인 과제였다.

宣敎를 목적으로 權力이나 背景이 없이 개인적으로 國語研究에 참여한 서양인들은 애로와 고난이 극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荊棘의 길을 극복하고 音韻·文法·辭典編纂·國語의 系統·國字의 起源에까지 폭넓게 연구하여 뒷날 國內學者들의 國語研究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중훈 외 207-08)

황용수는 맨 먼저 국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사실상 서양선교사들이었다고 못박고 있다.

숭실대학교의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도록에 의하면 초기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1887년에 이미 A. D. 스콧이 지은 『한국문법』(*A Korean Manual*)이 출간되었다. 조선에 주재했던 영국적인 스콧은 “한국어의 자음·모음, 문법에 관해 품사별, 문장별로 영어로” 설명한 문법서“로” 외국인의 시용에 편의“와” “한국어의 체계화”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253). 1890년에는 언더우드 목사에 의해 외국인에게 한국어 및 문법에 관한 지침서로 이용된 『한영 문법』(*Grammatical Notes of the Korean Spoken Language*)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1부 문법편에서는 한국자음과 모음, 명사, 주어, 동사변화, 존대어, 문장구조 등을 다루었고 2부 영한 문장편에서는 영한문장대비를 통해 실제적인 용례”를 다루었을 뿐 아니라 이 문법서는 “서구 언어학적 방법론에 의한 한국어 문법 정리이며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지침서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253). 같은 해 언더우드 목사는 『한영사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와 『영한사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을 동시에 출간했다. 1897년에는 북장로회 선교사 J. S. 게이도 1894년에 한글문법서로

『사과지남』(辭課指南/*Korean Grammatical Forms*)을 펴냈다. 이 책은 “한글문장과 영어문장을 대조하는 형식”을 취했고 특별히 “동사에 대한 자세한 의미설명과 변형규칙을 서술”하여 “한국어 문법체계” 수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계속해서 개일은 『한영사전』(*Korean-English Language*)을 펴냈다. 이 사전은 3만5천개의 표제어를 가진 한영사전이다. 3판을 낼 정도로 당시 대외의 한국어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어의 어휘정리와 문법체계”를 정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부록에는 “단군으로부터 순종에 이르는 역대 왕의 계보도, 연표, 십이지간, 60갑자, 수사(數詞)”도 첨부된 점이 특징이다(255).

개화기에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여구는 한글의 문법체계, 어휘론, 통사론, 철자법, 정서법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국어학자 지춘수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 땅에 선교사 등의 자격으로 발을 들여 놓으면서, 아니 그 이전에, 들여 놓을 준비로 조선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것을 위하여 갖은 고난을 무릅쓰고 그들은 주로 우리나라 고전을 통하여 어휘를 수집하였으며, 그들 문법 체계에 맞추어 우리 문법을 연구하여 그 바탕 위에서 마련된 철자법이기에 때문에 보수적 일면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나, 문법 지식에 매우 조숙한 일면도 보여 주고 있어, 그들의 초기 성경번역과 그 기록이, 그 이전의 우리 조상들처럼 마구잡이로, 기분 내키는 대로, 백이면 백 사람이 모두 달리 쓰던 우리글 표기의 태도가 아닌, 성실과 신중을 기하여 조금도 허트러짐이 없는 과학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데서, 그들의 국어 정서법 확립에 이바지한 공은 높이 평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19)

많은 국어학자들이 개화기 선교사들이 성경번역을 통해 한국어 근대화에 이바지한 것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들을 여기에서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다. 최태영은 정서법(正書法)의 경우 1911년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제정한 “총독부 철자법 제1차 규정”이 성경식 철자법을 대체로 따르고 있고 그 후 1921년과 1929년에 두 번의 개정을 한 후 1933년에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할 때도 성경식 정서법의 기본원칙이 그대로 지켜졌다고 주장하였다 (4).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번역을 통해 “한글”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자긍

심을 가지게 된 것은 선교사들의 엄청난 기여임에는 틀림없다. 세종대왕이 1446년 11월 한글창제 관청인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고 최만리와 같은 한문 숭배 유학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대의명분은 두 가지라 한다(이덕일). 이 대의명분을 살피는 이유는 개화 초기의 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대의명분과 일백상통하기 때문이다. 첫째, 한문을 읽고 쓸 줄 아는 양반계급의 일부 식자층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쉬운 언문(한글)로 용비어천가 같은 시를 지어 이씨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화기 성경 번역자들도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를 못 읽는 일반 하층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세종이 옥사(獄辭, 법률용어)를 언문으로 기록해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모두 쉽게 알아들어 억울함을 품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려운 한자로 된 법률송사의 기록들을 한글로 기록을 해서 백성들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개화기 성경번역자들도 당시의 중국어 성경에서 조선의 일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쓰인 하나의 말씀을 빨리 쉽게 접근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찬송가나 다른 교리문답서 등도 모두 한글로 번역하거나 출판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였다.

초기 성경번역에 참여했던 선교사들은 한글 자체에 대한 연구나 가치 탐구를 했다기보다는 복음을 쉽게 전파하고 이해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글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한글 번역 작업은 의외의 열매를 맺었다. 한글의 과학성, 한글의 탁월성, 한글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깨닫게 해 주었다. “기독교의 급속한 발전은 곧 한글 발전에 대한 공헌이 그만큼 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김윤경의 말을 들어보자.

그들은 전도하기 위하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며 愚民 男女 老幼에게도 그 성경을 읽히기 위하여 한글을 가르치며 이미 소개함 같이 학교를 처처에 설립하고... 자녀를 모아 교육하되 종래의 유교교육과 같이 순한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한글로 하였습니다. 종래에는 儒教에 중독되어 한문이 아니면 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한문을 모르면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한글을 모름은 태연할 뿐 아니라 도리어 모르는 것을 자궁할 만큼 한글을 경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배가 언제까지 묻히어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침내 기독교가 그 그릇된 생각을 깨뜨리고 한글의 가

치를 천명하여 광채를 세계적으로 발휘하게 함에 큰 공적을 끼친 것입니다. 교도들은 한글 모르는 이가 거의 없다 할 만큼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한글 발전에 대한 그 공헌이 얼마나 큰가 헤아릴 만한 것입니다. (651-52)

오늘날 한글은 사용면에서 세계 15위이고 언어경쟁력 면에서 9위라고 한다. 발성기관의 모양을 보고 만든 문자라서 컴퓨터에서도 세계 언어 중 가장 높은 음성 인식률을 가지고 있어서 유비쿼터스 정보화 시대에 가장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글은 이제 디자인 분야뿐 아니라 미술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일찍이 중국을 소재로 한 소설 『대지』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펄 S. 벅(Buck)여사도 한국에 관한 소설인 『살아있는 갈대』(*The Living Reed*)의 서문에서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탁월한 글자”라고 극찬하였고 오늘날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자모는 꿈의 알파벳”이라고 칭송한다. 아마도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유네스코가 1997년 10월에 한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한글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에도 개화기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다.

전택부는 개신교의 한글 번역사역이 “기독교식 한글문체”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1896년에 창간한 『독립신문』과 1897년에 창간된 기독교계 신문들을 번역 성경과 비교하면서 성경문장의 기독교식 한글 문체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902년 독립협회 사건으로 7년간 투옥되었던 이승만(1875-1965)이 쓴 저서 『독립정신(또는 옥중기)』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모든 권리의 근본을 다 백성의게 주장해야 중앙정부의 관원을 선정하거나 큰 사건을 결정할 때에는 전국 백성이 일체로 투표하여 사람 수효의 다소를 따라 결정하며, 한 고을일은 다각기 그곳 사람들이 일제이 모여 한 법으로 맞아 행하며 일정한 법률 밋히는 상하귀천 빈부로소 남녀관동의 등분이 조금도 없고 다만 나이 호적할 년한에 차서 능히 체몸을 다스릴만한 자는 다시 일체 평등한 백성의 권리었나니 이는 한두 관원이나 옷사람이 어진 마음이 나면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치 안으면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조 일정한 장정을 만들어 전국에 발포하매 백성이 한나도 이것을 모르는 자 없서서 서저히 직해가매 한두가지라도 그 법에 버서나는 거시 있으면…… (전택부 144에서 재인용)

전택부에 따르면 배재학당 재학 시 이미 기독교 신자였고 『협성회보』 기자였던 이승만의 위의 글이 성경문체와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한글이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기에 “일본식 문체와 표현방식”에 침해를 받아 “조잡하고 오염된” 한글로 변했다는 것이다(144).⁵⁾

VI

성경, 찬송가 그리고 각종 기독교문서들의 번역, 사전 편찬과 한글 문법서 발간 그리고 신문 잡지 창간은 모두 개화기 기독교의 한글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한자 중심의 어문생활에서 벗어나 한글 중심으로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가장 전형적인 근대화 과정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한반도에서 서구 열강들과 중국, 일본과의 각축전 속에서 우리 민족이 문화적 주체 의식을 가지게 되고 국민대중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사상을 품게 된 것은 근대화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며 토대이다. 서구에서도 근대의 시작은 모국어 운동과 문

5) 한국근대문학에 영향을 끼친 개화기의 성경과 찬송가 번역과 배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상과 어문학에 끼친 영향을 김경완은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요약하고 있다.

성경의 번역과 찬송가의 간행은 한글과 시가문학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 성과는 당연히 國文文學의 양적이며 질적인 발달로 이어졌다. 성경 자체가 지니고 있는 사상적 내용, 즉 자유·평등·박애·민주주의·영혼구원 등에 의한 정신적인 영향이 컸다. 성경은 번역어로서 평이한 언문일치의 한글을 채용함으로써 조선 5백 년 동안 정처없이 표류해 온 우리나라의 문자생활과 언어생활에 한글에 의한 언문일치운동을 뿌리내리게 했다. 성경의 국역은 성경의 급속한 보급과 개화기소설 이후의 표기체계의 주류가 되는 한글에 의한 언문일치운동의 선두적 역할을 하였다. 성경이 지닌 독특한 표기체계, 語와 文의 구조, 문체 및 新語의 제작 등이 언어생활에 들어와 국어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던 것이다. 한국 찬송가가 한국의 근대시와 연관을 갖는 영역은 창가, 신시 및 자유시 등의 율격의 완성 확충의 면과 아울러 새로운 음수율에 기초를 둔 신선한 리듬의 공급 및 전통 음율인 4·4조의 서정을 변혁하려고 한 점이다. 찬송가는 육당 최남선의 7·5조 창가와 더불어 초기 한국 시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40-41)

맹타파, 민족국가의 수립 그리고 민권사상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개화기 개신교의 성경과 찬송가의 번역과 보급, 기독교의 급격한 신장, 그리고 교인들의 성경 읽기의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문맹퇴치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의식이 고양되고 한자를 중심으로 하여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 지배계급이 붕괴하고 새로운 시민계급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서구의 각종 새로운 사상, 지식, 기술이 유입되어 근대적 국민의식인 주체적인 한민족 이데올로기가 생겨나고 새로운 민주국가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성경』의 번역을 통한 사유 방식과 언어생활의 혁신 그리고 『성경』이 교육, 정치, 경제, 사회에 끼친 새로운 사상들은 개화기의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문화충격이었다. 따라서 개화기 기독교의 한글운동은 조선이 모든 영역에서 근대이전의 질서에서 근대적 질서로 편입되는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영문학, 번역학, 비교학에 관심을 가진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몇몇 선각자들의 말을 들어보자. 앞서 잠시 언급된바 있는 임화는 “문학적 환경” 속에서 문화교류 내지는 문학적 교섭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것은 별도로 “비교문학 혹은 문학사에 있어서의 비교적 방법으로 별개로 성립할 수도 있다”(485)고 말하면서 비교문학의 방법론적 당위성을 인정하고 외국문학 소개사와 번역문학사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신문학은 서구문학의 이식과 모방 가운데서 자라났다. 여기에서 이 환경의 연구가 이미 특히 서구문학이 조선에 수입된 경로를 따로히 고구(考究)하게 된다. 외국문학을 소개한 역사라든가 번역문학의 역사라든가가 특별히 관심되어야 한다”(485). 그러나 한국의 본격적인 근대문학의 시작이랄 수 있는 신문학을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일본문학 또는 서구문학의 영향을 받는 일본문학 그리고 일본을 통한 서구문학 이식이전인 개화기의 유일한 번역이었던 번역 성경과 번역 찬송가의 영향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긴 김병철은 개화기의 성서 번역사를 마무리하는 장에서 성서번역문제가 “개화기 이후의 우리나라 사상과 언어 면에서 흥미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국문학, 국어학 그리고 번역(문학)을 전공하는 후학들에게 커다란 과업을 남겨 주었다.

성서국역은 국문학사 및 국어학사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한국번역문학사

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성서국역이 이 세 학사(學史)에 부과하는 과제는… 아직껏 다루지 못한 영역, 즉 성서가 지닌 독특한 표기체계, 어와 문의 구조 문체 및 신어의 제작 등이 언어생활에 침투되어 국어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으며, 또 그것은 그 후의 문학적 용어로서 굳어진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천착일 것이다.… 필자는 다만…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짧은 시일 내에 성취해 놓은 그 혁명적인 불멸의 업적을 그 자료 면에서 비교했다는 초보적인 일을 했음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서설적인 작업을 했을 뿐이다.… 이 중대사는 앞으로 국문학자, 비교문학자 및 외국문학자의 공동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중대과제임에 틀림없다. (71)

그러나 이 연구영역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연구 작업상의 방대하고 방법이 정치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언어와 문학의 보물창고인 성경의 번역이 한국의 문법 규칙, 언어생활, 문학적 비유, 문학적 소재와 구조를 밝혀내고 나아가 성경에 들어있는 다양한 사상이 우리의 사유방식에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지난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 작업은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영어, 히브리어, 희랍어도 정통한 국어국문학자, 외국문학자, 비교문학자, 그리고 성서학자들의 장기간에 걸쳐 비교언어, 비교문학,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대과업이다.

지금까지 이 글은 필자 자신의 지난 30여년의 학문에 대한 반성의 과정에서 생겨났고 필자를 위해 하나의 새로운 화두를 제공하는 지극히 시론(試論)적인 글이다. 따라서 필자에게 앞으로 많은 과업이 남겨져 있다. 개화기의 창가와 신체시에 커다란 영향을 준 찬송가 번역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어문근대화 과정을 추적하고 설명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비교 설명과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영향분석이 필요하고 성경번역과 관련하여 전통문학, 신문학, 근대문학과의 관계 규명을 해야한다. 성경번역과정에서 반드시 참고 해야 될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과의 비교대조 작업은 물론 개신교(1884년)보다 100년이나 앞서 들어온 천주교의 탁월하고도 엄청난 문서번역 사업의 연구도 바람직하다. 개화기의 한글 보급운동에서 지나치게 개신교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경향에 저항해야 하고 후기 개신교 번역과 천주교 번역의 대조비교작업도 앞으로 필자의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내희. 2000. 『중결어미 ‘-다’와 한국 언어적 근대성의 형성』 “근대성의 충격”. 국제학술지 <흔적> 서울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월 23일-24일.
- 권오만 외. 2000. 『기독교와 한국문학』 서울: 역락.
- 그리스도교외 편. 1973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 김경완. 2000. 『한국소설의 기독교수용과 문학적 표현』 서울: 대학사.
- 김병철. 1975. 『한국 근대 번역문화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_____. 1983. 『세월속에 씨를 뿌리며』(수상록). 서울: 한신문화사.
- 김윤경. 1938. 『한국문자급 어학사』 서울: 동국문화사.
- 김진균. 1967. 「기독교 찬송가가 한국음악문화에 미친 영향」 『동서문화』 1: 93-108.
- 박정신. 1997. 『근대 한국과 기독교』 서울: 민영사.
- 박종성. 2007. 「한국에서 영어의 수용과 전개」 『영어, 내 마음의 식민주의』 윤지관 책임 편집. 서울: 도서출판 당대.
- 박지향. 2003. 『일그러진 근대 - 100년 전 영국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근대성』 서울: 푸른 역사.
- 송민호. 1975. 『한국 개화기소설의 사적연구』서울: 일지사.
- 송승철. 2007. 「영어: 근대화, 공동체, 이데올로기」 『영어, 내 마음의 식민주의』 윤지관 책임 편집. 서울: 도서출판 당대.
- 숭실대학교. 2004. 『한국 기독교 박물관도록』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 기독교 박물관.
- 유성덕. 1985. 「한글성경이 우리 어문학에 끼친 영향」 『충신대 논문집』5:33-52.
- 유영렬, 윤정란. 2005.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 The Korean Repository를 중심으로』서울: 경인문화사.
- 유창균. 1967. 「국역성서가 국어발달에 끼친 영향」 『동서문화』 1:59-75.
- 이덕일. 2007. 「정음청과 언문청」 『조선일보』. 10월 10일.
- 이덕주. 2006.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서울:홍성사.
- 이민자. 1989. 『개화기 문학과 기독교 사상연구』 서울: 집문당.
- 이현희. 1979. 『한국개화 100년사』 서울:을유문화사.

- 임화. 1989. 「신문학사의 방법」 『문학의 논리』 서울: 서음출판사.
- 전택부. 1980. 「기독교와 한글」 『나라사랑』 36:130-144.
- 조신권. 1983. 『한국문학과 기독교』 서울:연세대출판부.
- 지춘수. 1971. 「초기 성경에 나타는 正書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4:19-41.
- 최남선. 1972. 『조선 상식문답』(1946) 서울: 삼성문화재단.
- _____. 1972. 『조선 상식문답 속편』(1947) 서울: 삼성문화재단.
- 최태영. 1983. 「초기 번역성경연구」 『송전대학교 논문집』13:37-68.
- 황용수. 1986. 「외국인의 국어연구」 『국어학사논고』 김종훈 외 저. 서울: 집문당.
- 홍덕창. 1984. 「기독교가 한국개화 및 학교교육에 미친 영향」 『총신대 논문집』 14:107-125.
- Lee, Jung Young. 1993. “Korean Christian Thought” in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Modern Christian Thought*. Ed. Alister E. McGrath. Oxford: Blackwell.

[Abstract]

The Protestant Missions for Translation and Moderniz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Chung, Chung Ho
(Chung Ang University)

The establishment of Protestant Christianity during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which spurred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Korea and the various cultural exchanges with the West. Through Koreans' own efforts, Protestant missions began coming to help set up the Protestant church in Korea. The Koreans' spiritual hunger and the urgent need for national rejuvenation motivated the rapid spread of Protestantism through the Word of God. This paper explores the Protestant missions' Korean translations of the Christian Bible and other religious documents during Gaehwagi or the Modernization Period(1894 to 1910). Protestant missionaries' translation and publication projects were very much conducive to moderniz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uring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early twentieth century.

In Manchuria Scottish Presbyterian missionaries, Rev. John Ross, and Rev. John McIntyre began to translate the Christian Bible into Korean with the help of several devout Korean adherents like Yi Ung Chan, Paek Hong Chun and So Sang Yun in the 1870's. They published the Korean Gospels of Luke and John in 1882 and continued to translate and publish the four Gospels, the Acts, the Romans, the Second letter to the Corinthians, the Galatians and Ephesians in 1885. In 1887, they finally came out with the entire *New Testament*, called the Ross version. This was the first complete translation to be published in

Korea. Rev. John Ross also wrote *A Korean English Primer* in 1877 and *Corea, Its History, Manners and Customs* in 1880. In Japan Yi Sujong, a member of the Korean friendship mission to Japan headed by Park Young Hyo, translated some books of the New Testament from Chinese into Korean in 1884. The first Protestant missionaries to Korea, the Revs. Horace Underwood and Henry Appenzeller, brought with them the Yi-translated Gospel of Mark.

The Holy Bible written in Hangul seemed to command high terms for moderniz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long with the first translation of the Western novel, John Bunyan's *The Pilgrim's Progress* in 1895. In addition, the publication of Christian newspapers and magazines during Gaehwagi also contributed greatly to moderniz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that time Gaehwa, modernization or civilization, meant Westernization in many respects. The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needed Christianity as its spiritual backbone. All the Protestant missions for translation during Gaehwagi thus rendered basic service to the early stage of Korean modernization in many areas; as such, it is critical to study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Bible and the modernization of Korean linguistic and literary culture.

- ▶ Key Words: Gaehwagi, or Modernization Period,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Korean Language, Grammar and Dictionaries, Moderniz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정정호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영문학과 교수

chungch@cau.ac.kr

관심분야 : 문학비평과 이론, 비교문학, 문화연구

논문투고일: 2007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 2007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07년 12월 15일